



출판사들은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이름을 짓기 위해 고심한다. 최근에는 독특하면서도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이름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책의 출판사를 확인하려다 고개를 갸웃거릴 때가 있다. 출판사 이름이 오묘해서다. 독자들은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추리해본다. '고도' 출판사의 예를 보자. 고도(古都), 고도(古道), 고도(高度) 등 해석의 여지는 많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으리라. 그런데 출판사의 의도는 'Go & Do', 말 그대로 '가서 직접 행하라'는 뜻. 정말 의외다.

간결함과 강한 이미지가 최대 조건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긴 출판사들을 볼 때 외국어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블랙박스, 북스힐, 휴머니스트, 위즈덤하우스, 에코리브르, 크레앙, 자인, 룩스, 이크, 기탄잘리, 프로메테우스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최근 경제경영서를 활발히 펴내고 있는 '위즈덤하우스'의 경우, '지혜를 나누는 집' '지혜의 전당' 등이 후보에 올랐다가, 해외에서도 쉽게 통용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위즈덤하우스'로 정했다. 물론 모두가 그런 의도는 아니다. '크레앙'은 'creative language' (창조적 언어)의 약자고 '자인'은 독일어로 '존재'를 뜻하는 'Sein'의 우리말 발음이다.

순수한 우리말을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낮은산, 물푸레, 계수나무, 도토리, 보리, 강은 자연물을 그대로 사용했다. '일하는사람들의작은책' '좋은책만들기' '글읽는세상' 등의 문장 형이 있는가 하면, 아이세움, 식물추장, 꿈소담이, 하늘재 등 예쁜 이름도 있다. 이름, 이채, 리수, 이소, 다우, 지호, 다지리, 예담 등은 간결하고 깔끔

한 이미지에 방점을 찍는다. 뜻을 물어보면 "그냥 읽고 듣기 좋아서 지었을 뿐"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런 이름들엔 나중에 의미가 붙는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서 '답변용'으로 만들어둔다. 그런데 이 '후천적 의미'가 독특하다. '리수'는 '里水'로 마을의 물처럼 언제나 곁에 소중한 것으로 머문다는 뜻이다. '이소'는 '二笑'로 둘이 마주보고 웃는다는 의미. 강현석 대표는 "한 사람이 인사를 하며 웃으면 다른 편도 미소로 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을 생각하라"고 내쳐 덧붙인다. 정말 꿈포다는 해몽이다.

궁리, 자우, 희년, 놀와, 이끌리오 등은 고전에서 힌트를 얻었다.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을 추구하는 '궁리'는 과거 동양에서 과학을 일컬어 '궁리학' (窮理學)이라 했던 데서 따왔고, '자우'는 노신의 경우 '횡미냉대천부지 부수감위유자우' (橫眉冷對千夫指 俯首甘爲孺子牛)의 마지막 석자에서 '유'를 떼고 사용한 것. '남 눈치 보지 않고 세상 많은 것들을 실어 나른다'는 의미다. '지호'는 어조사 '之'와 '乎'의 결합이다. 이 두 글자가 안 들어가는 문장이 없어, 선인들은 '책 읽는다'를 '지지호호'로 부르기도 했다는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었다. '놀와'는 선비들이 즐겨 사용한 '호'인데, 출판사에서 '어눌한 사람들의 집'이란 의미로 전유해서 사용중이다. 어떤 이들은 '누울 와'가 연상돼 예로틱하다고 농을 건넨다. '이끌리오'는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뮤즈 12명 가운데 '역사의 여신' 끌리오를 의미한다. 그런데 법인체 등록을 하려고 보니 외국

의 동명 화장품회사가 있어 고민 끝에 앞에 '이'를 붙였다. 21세기라는 뜻이지만 사람들은 "정말 이끌리는데요..."라고 아부해, 출판사 직원들을 즐겁게 해준다. '집사재' (集思齋)는 생각을 모은 집이고, '희년' (稀年)의 경우는 기독교에서 50년마다 돌아오는 좋은 해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했다.

'엽기' 적인 이름도 눈에 띄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엽기' 적인 이름도 보인다. '게나소나'가 대표적이는데, 그 '속뜻'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딴지그룹'은 <딴지일보> 출판부 이름이다. '10101'과 '창조집단지빌구'는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한 경우다. '10101'은 '21세기'의 이진법 표현이다. 사진작가의 작품집을 주로 내는 '시빌구'는 '1019'를 읽은 것으로 회사의 창립일에서 따왔다. 가끔 우편물에 '시발구'라고 오기될 때가 있어 속상하지만 바꿀 생각은 없다고 한다.

- 강성민 기자

개성 있고 재미있는 출판사 작명법

읽고 듣기 좋은 이름 선호해

최근 출판사들의 작명 관행을 지켜보면 옛날과 달리 매우 개성적이다.

옛날에는 보통 출판사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치중했으나, 요즘은 발음하기 좋고 듣기 좋으며, 강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름을 선호한다. 세계화에 발맞춰 외국어 이름과 예쁘고 소박한 순우리말도

인기가 높다. 간혹 '게나소나' 같은 엽기적인 이름도 눈에 띈다.